

가산초 졸업식 “선생님 감사합니다”

멀티비전 통해 학생 개개인 장래희망 등이 담긴 영상 보여줘

가산초등학교(교장 김창성)는 지난 4일 가산초등학교 대강당에서 제71회 졸업식을 개최했다.

포천시에서는 올해 처음으로 마련된 이번 가산초등학교(교장 김창성) 졸업식은 졸업생 117명과 박윤국 포천시시장, 이용희 포천교육청 학무과장, 김영오 포천시의회의원 등 내빈과 학부모 4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됐다.

이날 졸업식에서 김창성 교장은 졸업생들에게 ▶투지와 인내가 복합된 건강이 중요 ▶항상 미래의 꿈을 기억하고 입력 ▶확실히 달성할 수 있도록 노력 ▶학생들을 키워준 사립들에 대한 봉사하는 고미운 마음 ▶정직을 바탕으로 한 신뢰받는 사람으로 성장할 것 등을 강조했다.

이어 이용희 포천교육청학무과장은 기초학문에 충실하고 바른 인성을 기를 수 있도록 졸업생들이 성실해 살아갈 것을 당부했다.

한편 졸업식에서는 김창성 교장이

졸업생 117명에게 일일이 졸업장을 수여, 멀티비전을 통해 학생 개개인의 장래희망 등이 담긴 영상이 상영되는 가운데 진행됐다. 또 졸업반 담임교사들이 졸업생 개개인에 대한 소개를 직접해 교사와 학생의 정이 느껴지는 졸업식이었다는 평가다.

이날 학교장 및 교육관련 대의상을 수상한 학생은 다음과 같다.

- ▷학교장표창 ▶성실상 임교은 외 11명 ▶문학상 강아림 외 11명 ▶질서상 이지훈 외 13명 ▶체육상 김영민 외 14명 ▶탐구상 이민재 외 11명 ▶예술상 이지수 외 13명 ▶과학상 류건 외 10명 ▶기능상 김명우 외 13명 ▶봉사상 조찬희 외 11명 ▶교육관련 대의상 ▶포천교육청 교육장상 신세인 ▶포천시 교원연합회장상 정해경 ▶경북중학교장상 지대성 ▶자매부대장상 이민규 ▶학교관련 교내상 ▶학교운영위원회위원장상 김영준 ▶충동문화장상 현명기 ▶체육진흥회장상 이효선 ▶대의상 ▶국회의원상 석에인 ▶포천시시장 김희춘,



가산초등학교(교장 김창성)는 지난 4일 가산초등학교 대강당에서 제71회 졸업식을 개최했다.

- 조윤희 ▶경기도의회의원상 김진은 ▶포천시의회의원상 김초이 ▶가산초등학교장상 이인규 ▶학교관련 교내상 ▶가산농업협동조합 조합장 이순현 ▶새마을운동 포천시지회장상 김규리 ▶포천시태권도협회장상 박진혁 ▶포천시자연보호협

회회장상 전선미 ▶경기북부환경경지 김이상 조항성 ▶우리병원장상 김연수 ▶캡스카우트연맹 총재상 김규리, 연맹장상 이상학 ▶걸스카우트 연맹 총재상 서하나.

지혜백 기자 94spice@hanmail.net

가산초 제32차 정기총회 및 동문만남의 행사

축구부 버스 구입 후원금 전달 결의

가산초등학교총동문회(회장 이일용, 29회)는 지난달 29일 송우리 하모니웨딩홀에서 제32차 정기총회및동문만남의행사를 개최했다.

가산초등학교 동문의 화합과 단결을 위해 마련된 이날 행사는 1부 정기총회와 2부 동문만남의 행사로 진행됐다. 56명으로 구성된 1부 정기총회에서는 동문회장 인사와 축사, 감사패증정, 감사보고, 2005년도 예산안의 및 정관등의 등의 순서로 진행됐다.

2부 동문만남의 행사는 내빈소개와 동문회장 인사, 건배제의 등 동문간 만남의 시간을 갖고 우의를 다지기도 했다.

이일용 회장은 “동문상호간의 친목도모를 위해 매년 동문회를 개최하고 있다”며 “이 모임이 가산초등학교

의 후배들과 지역사회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동문 모두 노력하자”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동문회에서는 가산초등학교 축구부 버스 구입을 위해 동문의 정성을 모아 5백만원의 후원을 결의하기도 했다.

이번 동문회를 마련한 제9대 가산초등학교총동문회 임원진은 ▶총동문회장 이일용(23회), ▶부회장 박석화(23회), 이종상(25회), 윤영창(27회), 김은수(28회), 김동천(31회), 이영규(34회), 이상원(37회), 황병철(40회), 이태희(43회) ▶감사 이극중(34회), 이종운(32회) ▶총무 이진수(47회) ▶회계 이일구(49회)로 구성돼 있다.

지혜백 기자 94spice@hanmail.net



가산초등학교 총동문회장이 이일용회장이 지역사회에 도움이 되도록 모두 노력하자며 인사말을 하고 있다.

대入 농어촌 특별전형 4%로 확대

2009년까지 초현대식 기숙사 갖춘 88개교 신설

내년부터 농산어촌 학생의 대학입시 특별전형 정원의 모집비율이 현재 3%(1만1천명)에서 4%(1만5천명)로 확대된다. 또 농산어촌지역 학생들의 대학진학률을 높이기 위해 오는 2009년까지 초현대식 기숙사 시설을 갖춘 우수 고교 88개교가 세워진다.

농산어촌 출신 학생의 교육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고교생 학자금 지원이 모든 농립어업인 자녀로 확대되고 중·고생에게도 급식비가 지원된다.

정부는 1일 이해찬 국무총리 주재로 ‘농립어업인 삶의 질 향상위원회’를 열어 이같은 내용의 ‘살기좋은 농산어촌을 만들기 5개년 기본계획’ 초안을 마련했다고 발표했다.

정부는 이를 위해 ▶복지 ▶교육 ▶지역개발 ▶복합산업 등 4개 분야별로 139개 세부과제를 선정하고

2009년까지 국비 11조6천억원, 지방비 8조1천억원 등 모두 20조2천억원을 투입할 방침이다.

정부는 교육대학 졸업후 일정기간 농산어촌지역 근무를 조건으로 학비가 면제되는 교육감 추천 장학생을 2009년까지 2천800명으로 늘리기로 했다. 또 보육시설이 없는 491개 읍·면지역에 연간 100곳씩 국·공립 보육시설을 설치할 방침이다.

농립어업인에 대한 영유아 양육지원비는 가구당 월 10만2천원에서 12만2천원으로 높이고 건강보험료 경감액도 연간 21만원에서 40만4천원으로 늘리기로 했다. 연금보험료 1인당 연간 지원액은 지난해 최대 15만2천원에서 2009년까지 최대 39만4천원으로 상향 조정할 방침이다.

김영록 기자 best114@paran.com

윤종성의 미국어 따라하기

- 86. 오늘은 돈이 없네요.
I've got no money today.
아이브갓 노모니투데이
* 누가 그걸 믿어?
Nobody believes it.
노우버리블리브스잇

- 87. 이걸 어디서 인쇄 하나요?
Where can I get this printed?
웨어캐나이갓디스프린트?
* 바로 저긴데, 간판 보이시죠.
Right over there, you see the signboard.
라이오버타어, 유씨어더사인보드



☞문의:윤종성 (017-723-4977)coolyoon@nate.com

교사 탐구

내손초등학교 연구부장 나남균

“교육은 經營하듯이 해야 한다”

초등음악 전담교사로서 항상 연구하는 教師像



“교육은 철저한 마인드를 심어주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첫째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둘째, 아이들을 내 지식처럼 생각하는 것입니다. 셋째, 먼 훗날 손가락질 받지 않는 교사가 되는 것입니다.”

내손초등학교 연구부장 나남균 교사(46.사진)의 교사론이다. 나 교사는 교육을 경영이라고 강조한다. 교육을 경영하듯이 하지 않으면 교육계도 망하는 날이 올 것이라는 지적이다. 학교교육이 학생과 학부모와 교사가 삼위일체가 되어야 함을 강조한다. 학생들을 바로 교육하기 위해서는 학부모의 자녀에 대한 비전과 교사의 학생에 대한 지도, 그리고 학생이 부모와 교사의 교육을 철저히 따라야 한다는 점이 하나로 열린 마음이어야 한다.

나 교사가 교직에 입문한 것은 1982년이다. 전주교육대학을 졸업한 나 교사의 부친도 전주교대출신으로 교장을 역임하고 정년 퇴임했으며 나 교사의 큰아들 또한 공주사범대학에 입학해 3대가 교육자로서 대를 잇게 되었다고 한다.

첫 부임지는 전남 신안군 자은면 자은도에 있는 두봉초등학교다. 섬 안에 초등학교가 네 개가 있는 큰 섬이다. 목포에서 배로 4시간30분이 소요되고 다시 섬에서 1시간을 버스로 이동해야 한다. 두봉초등학교에서 3년동안 근무하면서 섬을 떠날 때 주민들이 환송행렬로 섬을 세 바퀴나 돌고 나왔다고 한다. 이때 정 때문에 눈물을 하염없이 흘린 기억이 있다.

나 교사는 학생들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가정방문이 필요하다라고 강조한다. 최근 가정방문에 대한 문제점을 우려해 가정방문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데 가정방문을 통해 학생과 학부모를 이해하는 것이 학생의 교육에 큰 도움이 된다고 한다.

특히 불우이웃돕기를 위해 불우이웃을 선발할 경우에 잘 알지 못하는 상황에서 남들의 이야기만 듣고 추천해야 하는 애로사항이 있음을 지적한다.

학부모초회를 하면 1개반 학생이 30명인데 실제로 회의에 참석하는 학부모는 5~6명에 지나지 않는다. 나머지 학부모는 전혀 얼굴도 모른 채 학생들을 교육해야 하는 실정이다.

나 교사는 또 학생들을 교육할 때 개인별 수준차이 뿐만 아니라 가정환경 등 제반 여건을 감안하여 교육해야 함을 강조한다. 그러나 학생들을 자세히 알지 못할 때 이러한 교육이 불가능하다. 그 학생의 처지를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가정방문교육이 필수적이다.

나 교사는 교육에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역시 신뢰감이라고 강조한다. 학생이 교사를 신뢰할 때 교육이 제대로 되는 것이다. 학부모가 교사를 신뢰할 때 학교교육이 그 효과를 거둘 것이다. 학부모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하여 그 학교에 맞는 교육을 실시해 나가야 한다.

학생들은 가정에서 부모님에 따라 성장과정이 달라지듯이 학교 교사에 따라 학생교육이 180도 달라질 수 있는 것이다.

김영록 기자 best114@paran.com

꽃은 사랑입니다

전국꽃배달서비스

가나안 꽃화원



꽃바구니, 동·서양란 / 축하화환, 근조화환 /관엽, 부케, 장미, 개업화분
생일꽃, 회갑꽃, 결혼꽃 / 교회꽃꽂이, 각종행사꽃

포천시 소흘읍 송우리 96-3(하송우리 대방 APT 맞은편) TEL.031)543-6767/543-2727 H.P.011-9254-8787 대표 이 경 근